

### 학습목표

1.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4.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Theme 1.

## 데이터와 자료해석 있는 지문 분석

# 학습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 [학습 자료]

### 1.지문과 노트

Phase 01		
지문과 노트가 있는 칸입니다.		
지문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설명:**

- 지문과 노트가 있는 칸입니다.
- 지문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To-Do List:**

- 왼쪽에 있는 지문을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 이후 노트 칸에 읽었던 지문을 편한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2. 노트필기

나이와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상여주기 효과(A), 기간 효과(P), 조	
- 개인이 특정 시점에 갖는 정치 성향은 그가	
그리고 나이가 들며 변화해 가는 상여주기	
상여주기 효과는 나이가	A: 30,000명, B: 20,000명, C: 10,000명
둘의 보수적이라는	[상여 주기의 보수성] 정치적 보수성별은 20~
가운데 30대	- 30~40대를 거쳐면서 보수성의 경도가 20~
	- 50세 이후부터 상여주기의 끝까지 높은 수
정치 시점에 발생한 역	P: 특정 조사 시점의 영향을 받아 나
사건이 전 연령 20~	- 특정 시점의 시련은, 과거보다 영향

**설명:**

- 지문과 노트 필기가 있습니다.
- 제 나름대로 지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노트필기를 하신 분들이 제 노트필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바로 지문학습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해설지로 바로 가서도 좋습니다.

# 해설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 [해설 자료]

### 1. 지문

[1 문단]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제인 사회  
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  
역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  
지이다.

- 효율성 시각
-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설명:**

- 두꺼운 두 줄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지문입니다.
- 지문 아래에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름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 2. 단어 확인

**WORD 1**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

直 곧을 직 觀 불 관 的 과녁 적

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쳐 지  
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WORD 2**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

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力 힘 력(역)

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2. 호소(呼訴)하여 동정(同情)을 불러일으키는

**설명:**

- 평소에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히 몰랐다면, 꼭 뜻을 확인합시다.
-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나름대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추가적인 학습 포인트

**CHECK 2**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정)

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

-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OR을 통한 문장구조)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  
중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설명:**

- 주어진 문장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학습 포인트를 읽고, 지문에서 해당 포인트를 직접 확인합시다.
- 복습하신다면, 꼭 별표나 자신만의 표시를 합시다.

### 4. 학습목표

학습목표

-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
-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
-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설명:**

- 처음에 정리된 학습목표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o-Do List:**

- 학습목표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합시다
- 학습목표 아래에 네모 칸에, 해당 학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깨달은 점들을 정리합시다.



# 학습자료

# Phase 01

##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정치적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효율성 시각은 어떤 제도가 채택되고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호소력을 갖지만, 전통적으로는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치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난점들을 극복하려는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동일한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되거나 또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따라 다른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가 능곡선 모델은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의 비용과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힘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충관계에 주목하여 이 모델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무질서 비용)과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라고 본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독재 비용과 무질서 비용을 나타내는 평면에서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국가 개입 정도 순으로 배열한 곡선을 생각해 보자. 이 곡선의 한 점은 어떤 제도를 국가 개입의 증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질서 비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곡선은 한 사회의 제도적 가능성, 즉 국가 개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①**제도가능곡선**이라 부를 수 있다. 이때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울기 -1의 직선과 제도가능곡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볼록한 모양이라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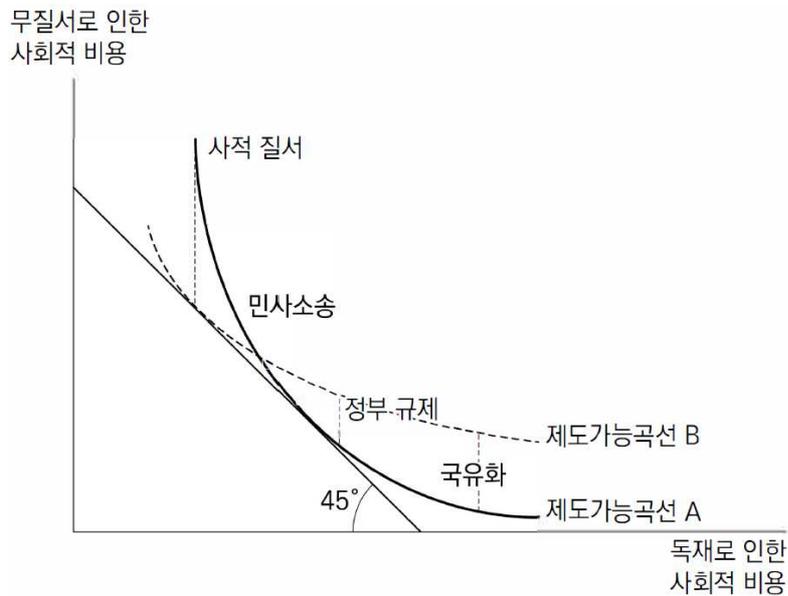
제도가능곡선 위의 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들을 공적인 통제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동기, 즉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사적 질서,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訴)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민법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 3) 경제주체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위반 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제법을 규제당국이 집행하는 정부 규제, 4) 민간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그 행위를 담당하는 국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대표적인 제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혼합된 제도도 가능하다.



# Phase 02

##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은 곡선의 모양보다 위치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사회의 능력, 즉 시민적 자본이다. 따라서 불평등이 강화되거나 갈등 해결 능력이 약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면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능력이 일종의 제약 조건이라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 것인지는 제도가능곡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능곡선이라 하더라도 그 모양은 국가나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국가 개입이 동일한 정도로 증가했을 때, 개입의 효과가 큰 정부를 가진 국가(A)는 그렇지 않은 국가(B)에 비해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곡선의 모양이 더 가파르고 곡선상의 더 오른쪽에서 접점이 형성된다.



제도가능곡선 모델의 제안자들은 효율적 제도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생적인 제도 변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립한 제도가능곡선 모델을 통해 효율성 시각에서 제도의 선택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Phase 01

##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정치적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효율성 시각은 어떤 제도가 채택되고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호소력을 갖지만, 전통적으로는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치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난점들을 극복하려는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동일한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되거나 또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따라 다른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의 비용과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힘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충관계에 주목하여 이 모델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무질서 비용)과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라고 본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독재 비용과 무질서 비용을 나타내는 평면에서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국가 개입 정도 순으로 배열한 곡선을 생각해 보자. 이 곡선의 한 점은 어떤 제도를 국가 개입의 증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질서 비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곡선은 한 사회의 제도적 가능성, 즉 국가 개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①**제도가능곡선**이라 부를 수 있다. 이때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울기 -1의 직선과 제도가능곡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볼록한 모양이라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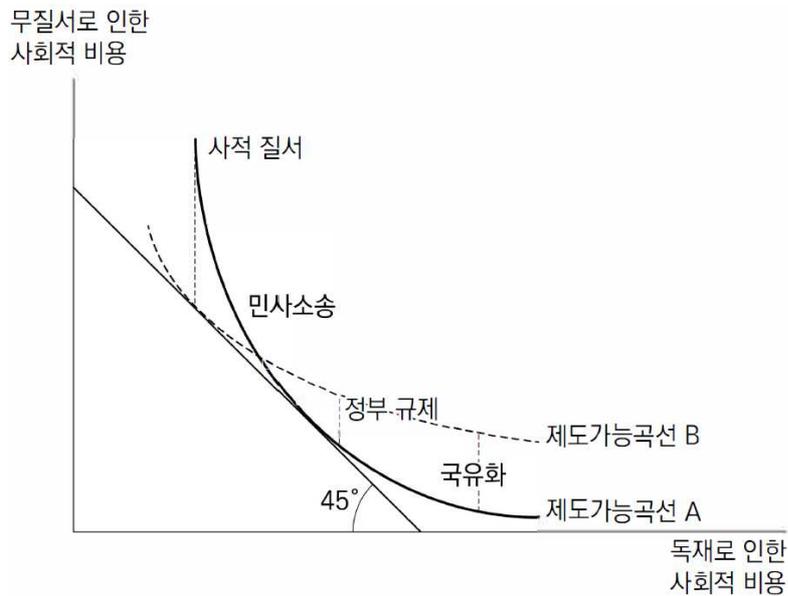
제도가능곡선 위의 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들을 공적인 통제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동기, 즉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사적 질서,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訴)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민법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 3) 경제주체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위반 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제법을 규제당국이 집행하는 정부 규제, 4) 민간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그 행위를 담당하는 국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대표적인 제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혼합된 제도도 가능하다.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정치적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효율성 시각은 어떤 제도가 채택되고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호소력을 갖음
	But, 전통적으로는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치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함 <b>[한계 혹은 문제점]</b>
	<b>[대응] 제도가능곡선 모델:</b>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동일한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되거나 또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따라 다른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기준]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의 비용과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예시] 협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 이런 상충관계에 주목하여 이 모델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무질서 비용)과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라고 본다.
	-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독재 비용과 무질서 비용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 평면에서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국가 개입 정도 순으로 배열한 <b>곡선</b>
이 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볼록한	▶ 제도가능곡선: 이 곡선은 한 사회의 제도적 가능성, 즉 국가 개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냄
모양이라고 가정한다.	- 곡선의 한 점은 어떤 제도를 국가 개입의 증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질서 비용
	- 이때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울기 -의 직선과 제도가능곡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효율적 제도의 선택
	제도가능곡선 위의 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들을 공적인 통제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
네 가지는	1)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동기, 즉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사적 질서,
대표적인 제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訴)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민법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
호합된 제도도 가능함	3) 경제주체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위반 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제법을 규제당국이 집행하는 정부 규제
	4) 민간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그 행위를 담당하는 규유화

# Phase 02

## 지문을 나누면서 읽자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은 곡선의 모양보다 위치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사회의 능력, 즉 시민적 자본이다. 따라서 불평등이 강화되거나 갈등 해결 능력이 약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면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능력이 일종의 제약 조건이라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 것인지는 제도가능곡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능곡선이라 하더라도 그 모양은 국가나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국가 개입이 동일한 정도로 증가했을 때, 개입의 효과가 큰 정부를 가진 국가(A)는 그렇지 않은 국가(B)에 비해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곡선의 모양이 더 가파르고 곡선상의 더 오른쪽에서 접점이 형성된다.



제도가능곡선 모델의 제안자들은 효율적 제도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생적인 제도 변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립한 제도가능곡선 모델을 통해 효율성 시각에서 제도의 선택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해설자료

[1 문단]

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정치적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 효율성 시각
-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

효율성 시각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 사회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주체다.
- 사회구성원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채택한다.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정치적 과정은 효율적 제도의 선택을 방해한다.
- 어떤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정치적 과정이 있더라도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가능하다.

CHECK 1 일반적인 — 한 일 般 가지 반

비슷한말 반대말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은 평균적, 표준적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말로 ‘부분적’이라는 단어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것이 제시될 때, 특수한 것이 뒤이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인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작성했습니다.

효율성 시각은 어떤 제도가 채택되고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호소력을 갖지만, 전통적으로는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치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 시각의 장점

- 어떤 제도가 채택되고 지속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직관적 호소력이라는 표현, 불분명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 표현이다.

WORD 1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

直 곧을 직 觀 불 관 的 과녁 적

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

WORD 2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

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力 힘 력(역)

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2. 호소(呼訴)하여 동정(同情)을 불러일으키는 힘.

그럼 직관적 호소력이라는 것은 ‘사유작용(깊은 생각) 없이 직접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이겠군요.

효율성 시각의 단점

- 전통적으로는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친다.
-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런 난점들을 극복하려는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동일한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되거나 또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따라 다른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 이런 난점들

- 전통적으로는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에 그침
-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함

#### 난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예측

- 특정한 제도가 한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설명을 넘어서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시해야 함
-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함

#### 이런 난점들을 극복하려는

##### 제도가능곡선 모델

-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동일한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줌

(상황요약) 다른 문제, 동일한 사회에서 제도가 채택됨

-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 따라 다른 제도가 선택되는 이유를 효율성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게 해줌

(상황요약) 동일한 문제, 다른 사회에서 다른 제도가 채택됨

**CHECK 2**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정)

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OR을 통한 문장구조)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장 내용은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 생략을 인식하지 못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 [2문단]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시장과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전통적 생각의 핵심

: 시장과 정부 중 하나를 선택함

그러나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의 비용과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 자유방임은 무질서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자유방임의 극단적 형태는 무질서다.
- 국가개입은 독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국가개입의 극단적 형태는 독재다

시장과 자유방임(시장의 특성)

정부와 국가개입(국가의 특성)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전통적 생각에 시장과 정부 중 하나를 선택만 해야한다는 점을 넘어섰다. 다만 시장과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제도가능곡선 모델의 핵심

: 자유방임에 따른 무질서의 비용을 통제하는 것과 국가 개입에 따른 독재의 비용을 통제하는 것 사이의 상충관계

- 자주 반복되는 내용인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의 상충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WORD 3** '비용'이란 費 쓸 비 用 쓸 용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즉, 무질서의 비용은 무질서로 인해 사용하는 돈의 양을 말하며, 독재의 비용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돈의 양을 말한다.

힘세고 교활한 이웃이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가 개입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의 상충관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험을 줄이려면, 국가에 의지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는 가능성을 줄이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충관계에 주목하여 이 모델은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비용(무질서 비용)과 독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라고 본다.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의 상충관계**

: 무질서의 비용이 감소하면 독재의 비용이 증가한다.  
 혹은 독재의 비용이 감소하면 무질서의 비용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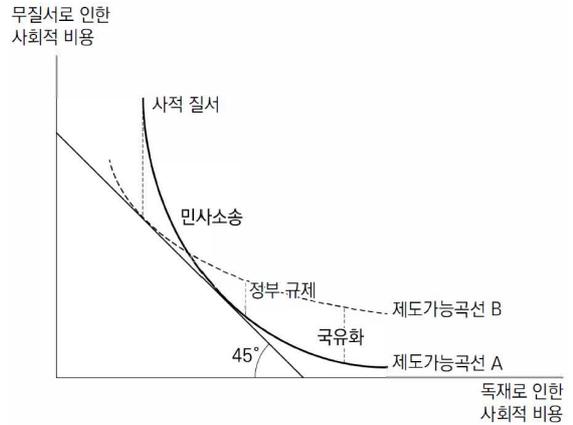
이처럼 두 비용은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대립상황에서도 두 비용에 적용되는 증가와 감소의 비가 다르기 때문에 무질서 비용과 독재의 비용의 합이 최소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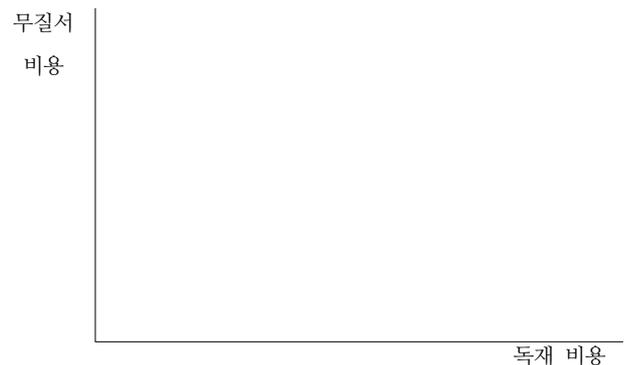
이 때 총 비용이 최소값인 제도가 효율적 제도다.

**총 비용 = 무질서 비용 + 사회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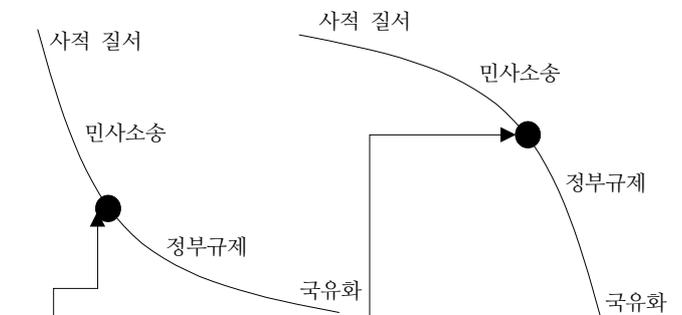
**[3문단]**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독재 비용과 무질서 비용을 나타내는 평면에서



특정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국가 개입 정도 순으로 배열한 곡선을 생각해 보자.



이 곡선의 한 점은 어떤 제도를 국가 개입의 증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질서 비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곡선은 한 사회의 제도적 가능성, 즉 국가 개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①제도가능곡선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사회의 제도적 가능성

: 국가 개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시장의)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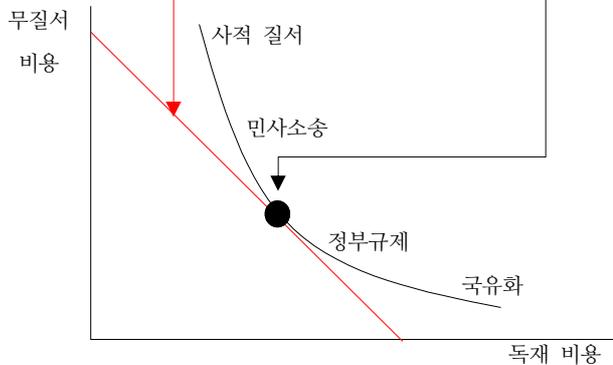
이때 무질서 비용과 독재 비용을 합한 총비용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울기 -1의 직선과 제도가능곡선의 접점에 해당하는 제도가 선택되는 것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다.

무질서의 비용 :  $y$

독재의 비용 :  $x$

모든 비용의 합 :  $C$

$$y = -x + C \Leftrightarrow x + y = C$$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곡선이 원점 방향으로 볼록한 모양이라고 가정한다.

CHECK 3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

1.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

- x축의 내용과 y축의 내용
- 변수의 종류와 상수의 종류
- 변수  $x, y$ 의 관계

(주의) 함수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선형 함수에서 확인할 항목

- 기울
- 상수항

\*\* 곡선 함수에서 확인할 항목

- 접선과 접점
- 증가와 감소
- 오목과 볼록

\*\*\* 원 함수에서 확인할 항목

- 중점과 반지름
- 접선과 접점
- 원의 내부와 원의 외부

2. 지문에서 해당 항목들을 찾습니다.

그래프 자료가 있다면 지문에서 찾은 항목과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간의 대응관계를 확인합니다.

[4문단]

제도가능곡선 위의 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들을 공적인 통제의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동기, 즉 시장의 규율에 맡기는 사적 질서, 2)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訴)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민법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 3) 경제주체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위반 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제법을 규제당국이 집행하는 정부 규제, 4) 민간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그 행위를 담당하는 국유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적인 통제의 정도  
≈ 한 제도의 제도적 가능성

정부의 통제가 거의 없음



사적 질서

: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동기, 즉 시장의 규율에 맡김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訴)를 제기하여 일반적인 민법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함

정부 규제

: 경제주체들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 위반 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제법을 규제당국이 집행함

국유화

: 민간 경제주체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그 행위를 담당함

정부의 통제가 매우 강함

이 네 가지는 대표적인 제도들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혼합된 제도도 가능하다.

정부의 통제에 따라 각 제도들이 구분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합된 제도 역시 존재한다.

CHECK 4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

개념들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념이 한 두 개 일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분류되는 개념들이 네 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류되어 만들어진 카테고리들 다 외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혹은 외우려고 하다가 잘못 읽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무언가들을 구분할 때,

개념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4문단에서 사적 질서, 민사소송, 정부규제, 국유화를 단시간에 암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 이 개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부 통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 개념들은 정부의 통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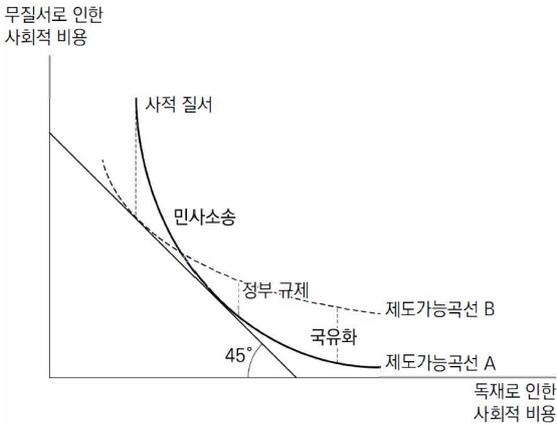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후 문제를 풀 때, 정부의 통제 정도 확인하며 개념 간의 줄 세우기를 하면서, 개념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념들을 구분할 때, 꼭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문단]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은 곡선의 모양보다 위치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사회의 능력, 즉 시민적 자본이다.

무질서와 독재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수준은

- 곡선의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
- 곡선의 위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 곡선의 모양으로 인한 영향보다 곡선의 위치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

CHECK 5 양적 비교 표현의 이해

양적 비교란, 다른 대상을 동일한 속성의 그 정도에 따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의 똑똑함을 비교한다고 합시다.

- A는 똑똑하다.
- B는 똑똑하다.
- A는 B보다 똑똑하다.

비교문장인 'A는 B보다 똑똑하다.'에서 A가 똑똑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B가 똑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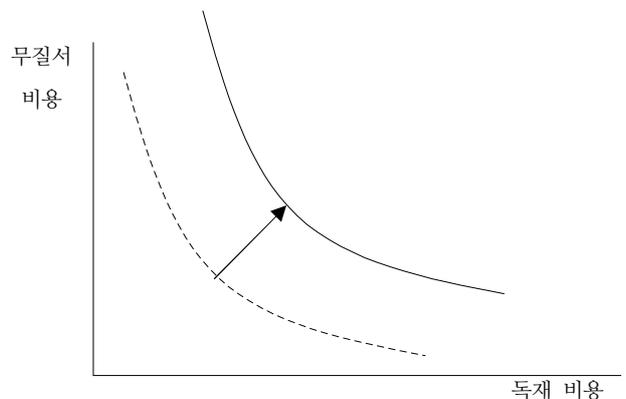
다시 말해, 비교 표현 역시 문장 성분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표현에서 비교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지만,

비교 대상들의 내용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이 강화되거나 갈등 해결 능력이 약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면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 불평등이 강화되거나
- 갈등 해결 능력이 약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경험함
- :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



WORD 4 '수준'이란? 水 물 수 準 준할 준

1.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2. 수면(水面)의 위치. 주로 육지의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된다.
3. 건설 면이 평평한가 아닌가를 재거나 기울기를 조사하는데 쓰는 기구.

즉, 총 비용의 수준은 총 비용의 양을 말한다.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적 자본'이다.

시민적 자본

: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사회의 능력

이러한 능력이 일종의 제약 조건이라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 것인지는 제도가능 곡선의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능력, 다시 말해 시민적 자본은 제약 조건이다.

**WORD 5** 제약하다 制 절제할 制 約 맺을 약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하다.

제약 자체가 '절제하는 약조'를 의미한다.  
제약 조건이란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이다.

시민적 자본을 제약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시민적 자본이 어떤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시민적 자본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제도 가능 곡선의 위치이다. 시민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도 가능 곡선은 좌하향하며, 이는 전제적인 제도를 선택하는데 있어, 사회적 총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적 자본이 제한하는 것은 제도 선택에 따른 사회적 총 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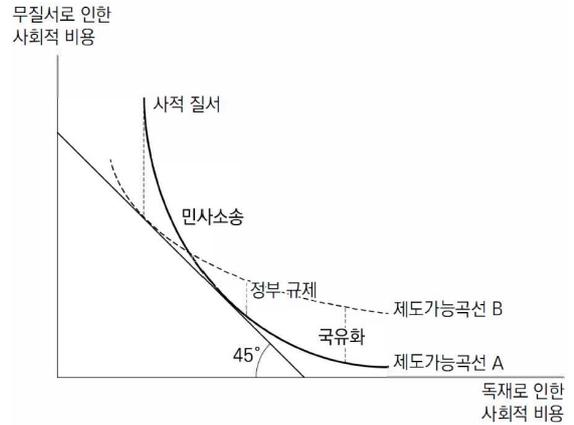
원인(변수): 곡선의 모양  
결과(변수의 해석):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 것인가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능곡선이라 하더라도 그 모양은 국가나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1차 원인: 국가나 산업이 다 다르다
- 1차 원인의 결과이자 2차 원인: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
- 2차 원인의 결과: 어떤 제도가 효율적일 것인가?

(요약) 국가나 산업에 따라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는 달라진다.

예컨대 국가 개입이 동일한 정도로 증가했을 때, 개입의 효과가 큰 정부를 가진 국가(A)는 그렇지 않은 국가(B)에 비해 무질서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곡선의 모양이 더 가파르고 곡선상의 더 오른쪽에서 접점이 형성된다.

## [6문단]

제도가능곡선 모델의 제안자들은 효율적 제도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실에서는 효율적 제도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현실에서 어떤 경우에는 효율적인 제도가 선택된다.

그러나 자생적인 제도 변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립한 제도가능곡선 모델을 통해 효율성 시각에서 제도의 선택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목적:**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자생적이라는 것을 이해함  
**중요한 수단:** 제도가능곡선 모델을 통해 효율성 시각에서 제도의 선택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

-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참고)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의 상충관계

: 무질서의 비용이 감소하면 독재의 비용이 증가한다.  
혹은 독재의 비용이 감소하면 무질서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처럼 두 비용은 서로 대립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대립상황에서도 두 비용에 적용되는 증가와 감소의 비가 다르기 때문에 무질서 비용과 독재의 비용의 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 때 총 비용이 최소값인 제도가 효율적 제도다.

## CHECK 6 '정성적'과 '정량적'

일반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율과 관련된 성질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효율성이 있고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을 정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효율성을 무질서의 비용과 독재의 비용의 합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통해 양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정량적이라고 말합니다.

제도가능곡선 모델은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접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량화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수치를 통해 누구나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정량화하는 과정은 많은 학문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논문의 주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능 국어 지문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